

# 로봇이 약 뿌리고, 수확물 운반까지 농진청, '농업로봇' 상용화 나선다

**‘로봇 연계’ 통합관리프로그램 개발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 대응 나서  
방제·운반·모니터링 로봇에 적용  
“농촌, 1농장-1로봇 시대 열릴 것”**

농진청이 농작업 단계별로 ‘로봇과 연계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통합관리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농업생산 인력 감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생산성 제고까지 도모한다. 또 농업로봇의 농가 보급과 산업 표준 개발을 위한 관련 산업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국내 농업·농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로봇의 도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올해 1월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어 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을 촉진해 2029년까지 스마트농업 기술과 장비 도입 온실 면적을 3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농진청은 온실에 스마트농업



이승돈 농진청장 국립농업과학원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스마트팜 무인화를 위한 로봇 기반 통합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농업로봇의 상용화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기술 활용을 위한 로봇(방제, 운반, 점검) 3종을 개발한 바 있다. 또 이들 로봇을 연계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작업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제어하는 ‘통합관리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통합관리프로그램은 농업인이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여러 대의 로봇을 연결해 동시에 관리하고 로봇 작업 정보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주요 기능은 로봇 관리, 작물 관리, 디지털영농 관리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프로그램을 우선 방제·운반·모니터링 로봇에 적용했다.

기술 적용 결과, 방제 로봇은 작업 지시부터 작업 여부 확인까지 전 과정을 완전 무인화 했다. 인력으로 할 때보

다 작업시간이 40%가량 줄었으며, 완전 무인화로 미립 방제를 할 수 있어 방제 효과는 15% 이상 높아졌다.

운반 로봇의 경우 인공지능 및 거리 측정 기술을 적용해 작업자 진행 속도에 맞춰 뒤를 따라다니며 수확 작업을 도와준다. 또 실시간으로 수확물 무게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일일이 무게를 달던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승돈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원장은 “가까운 미래, 농촌에는 ‘1농장-1로봇’ 시대가 열릴 것이며, 로봇을 활용한 농작업 단계별 자동화로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미아동 일대, 북한산 조망 1200세대 단지로

서울시, 미아동 345-1 신통기회 확정  
저층주거지 개선, 생활기반시설 확보

북한산을 배경으로 삼양사거리역세권과 솔샘로를 따라 자리한 미아동 345-1 일대가 25층 내외, 1200여 세대 규모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뺨뺨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수십 년간 개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해당 부지 개발을 위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마침내 변화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서울시는 ‘미아동 345-1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등 인근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은 물론, 북한산 경관과 학교 일조권 등 지역 여건을 두루 고려해 주변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대상지 남측 솔샘로에서는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오게 하고, 북서울꿈의숲과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등이 인접한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 자연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계획했다.

솔샘로에서 단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단계적으로 구성해 북한산 조망을 최대한 살리고, 학교

와 맞닿은 부분에는 공원을 배치해 학생들의 학습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단지 중앙에는 선형 광장을 조성해 동쪽으로 북서울꿈의숲을 조망할 수 있는 동서 방향의 조망축을 형성하고, 선형광장 주변에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배치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구상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삼양사거리역을 중심으로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등 다수의 개발사업과 구역 내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을 고려해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교통계획 또한 다수의 개발계획과 연계했다. 대상지 남측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계획과 연계해 2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해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리고, 불합리한 도로체계를 조정해 보차분리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생활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한다. 현재 삼양사거리역과 연결되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가로인 솔샘로를 따라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상가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거리의 활력을 높이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포켓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ihj@

# 코트라, 동남아 3개국서 ‘수출로드쇼’ 개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서  
의료기기·의약품 바이어 상담 지원

정부가 동남아 3개국에서 수출로드쇼를 개최하고 의료시장 공략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부와 정책에 대응해 업계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21일~25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

핀 마닐라에서 바이오메디컬 수출로드쇼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보건 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첨단 의료기기·의약품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의료관광 회복과 함께 바이오산업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고, 필리핀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억8000만명의 인구 중 중산층 소득 증가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약산업 육성과 보건 시스템 혁신개혁을 추진하는 등 최근 한국 의약기업과 클리닉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수출로드쇼에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 제품 ▲피부 및 미용제품 ▲정형외과 수술 및 치료기기 수출 강소기업 20개사가 참여, 현지에서 100개 바이어와 직접 만나 총 350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해수부, 부산·경남 어업인과 기후변화 논의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 개최

해양수산부가 24일 부산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포럼이 열리는 부산·경남 지역은 국내 수산업과 관련된 2, 3차 산업이 집적된 수산업의 대표 권역이다. 부산·경남의 수산물 가공품 생산량(43.2%)과 생산액(33.5%)은 전국 최대 수준이다. 경남은 전남과 함께 상승적인 고수온 피해 다발 지역으로 꼽힌다. 기후변화 영향을 타개하기 위한 수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했다. 또 인근해 어업 및 양식업 분야 관련 어업인들의 고충도 청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부산·경남에 이어 5월 중에는 강원·경북·울산 지역에서 어업인과 지자체, 해양수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경기·인천에서 개최된 지난 포럼에서 어업인 등 관계자분께서 보내주신 큰 관심에 감사드리며, 건의한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산·경남 지역에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유통업 AI 활용률 3%... AI 확산 속도낸다

산업부, ‘유통-AI 얼라이언스’ 출범

유통산업의 AI(인공지능) 활용률 제고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AI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했다.

얼라이언스 출범은 산업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의 후속조치다.

국내 유통산업은 소비트렌드 변화, 글로벌 플랫폼 진출 확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AI를 활용한 생산성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유통산업 AI 활용률은 현재 3%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생태계 조성이 우선 요구된다.

얼라이언스에는 유통기업, AI기술기업, 인프라기업, 벤처캐피탈 등 40여

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기술 전담반 ▲스타트업 육성반 ▲데이터 활용반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AI기술기업과 유통기업이 협업해 실제 유통현장에서 적용가능한 AI솔루션을 개발·검증해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유통·물류분야 AI전문 스타트업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얼라이언스는 10대 유통 AI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매년 30개 유통 AI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한편, 유통 상품 표준데이터 100만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오늘의 날씨

4월 24일 (木)

음력 : 3월 27일

수도권 날씨

11 ~ 2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46 | 해질 / 19:1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메트로 한줄뉴스



▲미국, 베트남 주재 외교관들에 “종전 50주년 행사 불참하라”  
▲러시아, 비우호국 화장품, 향수에 35% 추가 관세 /사진 뉴시스

▲푸틴-오만 술탄, 역사적 첫 정상회담...미·이란 핵협상 등 논의  
▲도요타, 상하이에 연산 10만대 렉서스 신공장 6월 착공

▲후쿠시마 원전, 사고 14년 만에 데브리 두 번째 반출 성공  
▲가자 전쟁 비판 뒤끝?...이스라엘, 애도 올렸다 가삭제